



獨-아르헨 '8강 빅뱅' 세계가 설렌다

사실상 결승전... 내달 3일 밤 11시 격돌
독, 잉글랜드 4-1 승·아르헨, 멕시코 3-1 꺾어

남미와 유럽을 대표하는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와 독일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8강에서 맞붙는다. 이들의 대결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고 빅 매치로 결승전에 버금가는 지구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월드컵 최고 빅매치 성사=아르헨티나와 독일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16강전을 나란히 승리로 이끌면서 8강에 안착해 7월 3일 밤 11시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스타디움에서 4강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 3연승을 포함해 4연승을 질주했고 독일 역시 '양속' 잉글랜드를 4-1로 대파했다. 아르헨티나는 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

그의 사커시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0 남아공월드컵 멕시코와 16강전에서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가 선제골과 썬기골을 넣었고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도 한 골을 보태 3-1로 승리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 8강에서 독일에 패했기에 4년만에 설욕을 노리게 됐다.

독일도 같은 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름폰테인 프리스테이트 경기장에서 열린 16강전에서 간판 골잡이 미로슬라프 클로제(바이에른 뮌헨)의 선제골을 필두로 소나기 골을 퍼부어 '축구종가' 잉글랜드를 4-1로 대파했다.

◇유럽과 남미의 대표 주자=아르헨티나는 월드컵 본선 네 경기를 하는 동안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순항하고 있다. 4골을 넣어 득점 선두를 질주하는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과 '마라도나의 재림'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 등 화려한 공격 라인에 가브리엘 에인세(아틀레

티코 콜론), 마르틴 데미첼리스(바이에른 뮌헨), 왈테르 사우엘(인테르 밀란) 등이 지키는 수비진도 탄탄하다.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은 "독일은 분명히 강한 팀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꺾을 준비가 돼 있다"고 여유를 보였다. 아르헨티나는 베티업체 레드브록스 우승 배당률 3분의1로 브라질보다도 우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세르비아에 0-1로 덜미를 잡혔던 독일은 잉글랜드를 상대로 네 골이나 퍼부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르비아와 경기 도중 퇴장당했던 2006년 독일월드컵 득점왕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잉글랜드전 선제골을 넣으며 건재를 과시했고 루카스 포돌스키(뉘른),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도 골 잔치에 가담해 요아힘 뢰프 감독을 안심시켰다. '전통의 강호' 두 나라 가운데 어느 쪽이 일찍 짐을 싸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클로제>



<이과인>

주심·부심만 몰랐다 오·심

심판들의 심각한 실수 경기 흐름 망쳐
골 판정 등 '비디오 판독' 도입 목소리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오심이 잇따르자 골을 관측할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한국시간) 열린 월드컵 16강전에서 잉글랜드와 멕시코는 모두 심판의 잘못된 판정 탓에 억울하게 한 골씩을 빼앗겼다.

잉글랜드는 1-2로 추격하던 전반 38분 프랭크 램퍼드(첼시)의 슛이 크로스바 아래에 맞고 골문 안쪽으로 넘어갔다 튀어나왔지만 골로 인정받지 못해 동점 기회를 날렸다.

심판의 오심으로 맥이 풀린 잉글랜드는 결국 라이벌 독일이 1-4로 대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러 열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경기에서는 전반 26분 명백한 오프사이드 위치에 서 있던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가 만든 헤딩골이 멕시코 선수들의 강한 항의에도 득점으로 인정받았다.

초반 잘 싸웠던 멕시코도 이 골이 인정된 이후 연속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하루 열린 두 경기의 흐름이 모두 오심 탓에 일방적으로 변해버리자 주심을 성토했던 공정한 판정을 위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연달아 나왔다.

역시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눈앞에서 골을 도둑맞은 잉글랜드다. 파비오 카펠로 감독은 경기 직후 "비디오 리플레이나 골라

인을 넘어갔는지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신문 미러 역시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번 월드컵에서 32억 파운드를 벌어들이면서도 오래전부터 가능했던(골인 여부를 판단하는) 간단한 기술을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FIFA를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26일 거스 허딩 전 한국 대표팀 감독도 네덜란드 일간 신문에 쓴 칼럼에서 골 판정에 비디오 판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한 바 있다.

허딩 전 감독은 지역 예선에서 나온 티에리 앙리(프랑스)의 핸드볼 반칙, 조별리그 G조 브라질-코트디부아르 경기에서 두 차례 핸드볼 반칙 끝에 넣은 루이스 파비아누(브라질)의 추가골, 조별리그 C조 미국-슬로베니아 경기에서 이유없이 인정받지 못한 모리스 에두(미국)의 골 등을 예로 들면서 "판정에 걸리는"단 몇 초만 참으면 큰 이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골키퍼 미누엘 도이아가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잉글랜드 프랭크 램퍼드의 슛을 막기위해 몸을 날리고 있다. 공은 크로스바를 맞고 골문 안쪽으로 꺾인 뒤 튀어나왔지만 주심은 골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고의 골잡이 나야! '펠레의 저주' 이번에도?

아르헨 이과인·獨 클로제·스페인 비야 득점왕 경쟁

남아공월드컵이 종반을 향해 치달으면서 득점왕 경쟁이 불붙고 있다.

선두는 4골을 넣은 아르헨티나 골잡이 곤살로 이과인이다. 최전방 공격수 이과인은 28일 멕시코와 대회 16강에서 감각적인 왼발 슛으로 골을 뽑아냈다.

지난 17일 조별리그에서 한국을 제물로 대회 첫 헤트트리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골을 추가하면서 공동 2위에 한 골차로 득점왕 단독 선두로 나섰다.

이과인은 2009-2010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27골을 몰아넣으면서 특급 스타 반열에 오른 포워드인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리오넬 메시, 카를로스 테베스와 함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과인을 한 골 차로 뒤쫓는 선수는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매 시즌 15골 이상을 터뜨리며 기록 없는 활약을 펼쳤던 다비드 비야(스페인), 한국과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루이스 수아레스(우루과이), 토마스 뮐

러(독일) 등 6명이나 된다.

쟁야작 이번 대회에서 2골에 그치고 있지만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득점왕(5골)에 오른 독일 간판 골잡이 미로슬라프 클로제도 강력한 득점왕 후보다.

이날 잉글랜드와 대회 16강에서 선취골을 터뜨린 클로제는 월드컵에서만 개인 통산 12번째 골을 작성하면서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브라질 호나우두 15골) 신기록을 향해 전진했다.

클로제는 2002년 한일 대회와 2006년 독일 대회에서 각각 5골을 터뜨렸고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14일 D조 조별리그 호주와 경기에서 한 골을 넣은 데 이어 이날도 득점을 쌓았다.

아르헨티나와 독일 선수들이 득점왕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두 나라 간 8강전은 득점왕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구황제 펠레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독일 가운데 한 팀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브라질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펠레는 이날 북동부 알라고아 주 마세이오 시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2014 브라질 월드컵 경기장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했다.

펠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1회전에서 탈락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결승전에서 독일과 아르헨티나 중 한 팀과 브라질이 대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펠레는 이어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이 이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브라질이 리오넬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월드컵 통산 6회 우승을 노리는 브라질에게는 독일이 더 쉬운 상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펠레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인 브라질과 스페인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은 바 있다.

원정 16강 쾌거 태극전사들 오늘 귀환

사상 첫 원정 16강의 쾌거를 이룬 태극전사들이 29일 오후 5시4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환한다.

베이스 캠프인 투스텐버그에서 남아공의 마지막 밤을 보낸 태극전사들이 28일 밤 11시55분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러시아로 이동하는 김남일(통 톱스)을 제외한 허정무 감독 등 코칭스태프와 22명의 태극전사들은 흥경을 경유해 29일 오후 5시55분 한국 땅을 밟는다. 지난달 22일 일본과의 평가전을 위해 한국을 떠난 지 38일 만의 귀국이다. 선수들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해단식을 갖고 소속팀으로 들어간다.

국내파들은 7월10일 전북과 대구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재개되는 K-리그를 준비하게 되고, 유럽파들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7월 초 출국해 다음 시즌을 대비하게 된다.

8월 초에는 새로운 체제의 대표팀이 출범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조만간 기술위원회를 열어 대표팀 재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16강을 지휘한 허정무 감독의 연임 여부에 따라 코칭 스태프의 개편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편된 대표팀은 8월11일 국제축구연맹이 정한 A매치 데이에 맞춰 첫 발을 내딛는다. 8월 초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재소집되는 대표팀은 9월7일 이라크와 평가

오늘밤의 월드컵			
	vs		29일 23:00
	vs		30일 03:30
스코어 보드			
독일	4	vs	1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3	vs	1 멕시코

전, 10월12일 일본과의 평가전을 치르며 내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1년 아시안컵을 준비하게 된다.